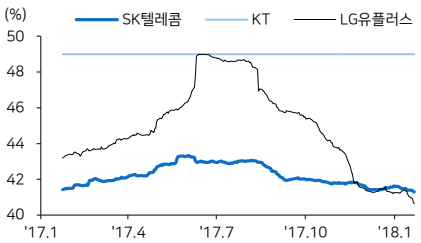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1W	1M	3M	YTD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6.4	-5.3	-7.0	-4.2	9.1	9.1	1.0	1.0	2.0	2.0
통신업종	-7.9	-9.8	-4.1	-9.0	7.8	7.8	0.8	0.8	4.0	4.0
SK텔레콤	-8.4	-10.1	-6.3	-10.1	6.9	7.1	0.9	0.8	4.2	4.3
KT	-5.3	-6.4	-4.8	-7.8	9.4	9.0	0.6	0.5	3.8	4.1
LG유플러스	-9.7	-12.7	4.0	-6.8	9.5	9.1	1.0	0.9	3.5	3.8
AT&T	-5.3	-1.2	5.3	-7.3	10.4	10.2	1.5	1.5	5.6	5.7
Verizon	-5.9	-4.3	11.1	-5.8	11.0	10.7	4.2	3.6	4.8	4.9
T-Mobile	-6.9	-7.3	4.2	-6.8	17.9	14.1	2.2	2.0	0.1	0.3
Sprint	-1.1	-6.9	-14.4	-10.0	22	311.8	0.9	0.9	0.0	0.0
NTT Docomo	-1.1	1.3	-5.1	1.1	13.8	13.9	1.7	1.6	3.7	4.0
KDDI	-6.9	-5.7	-15.6	-7.0	11.1	10.5	1.7	1.5	3.5	3.8
Softbank	-1.7	-1.4	-9.2	-1.3	24.6	13.3	2.1	1.7	0.5	0.5
China Mobile	-7.8	-4.1	-7.1	-5.9	10.1	9.6	1.2	1.1	5.0	5.0
China Unicom	-11.9	-4.5	-14.1	-2.8	23.9	15.9	0.8	0.8	1.5	2.6
China Telecom	-8.6	-5.9	-9.5	-5.4	10.6	9.7	0.7	0.6	3.8	4.0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1.3% (-0.1%p WoW, -0.3%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40.6% (-0.4%p WoW, -0.7%p MoM)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이탈이 지속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 지속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2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시장 대비 -1.5%p Underperform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에 따른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국내 통신업종은 4Q17 실적 악화와 부정적인 올해 가이던스 영향으로 외국인 이탈 지속
국내 기관은 LG유플러스 순매수, 외국인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도 지속

금주 전망

금주는 설날 연휴를 제외하고 주중에 통신업종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상황
연이은 주가 하락에 국내 통신업종 주가도 전저점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특히 KT는 역사적 저점 수준
기대배당수익률 관점에서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
매크로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국내 통신업종 주가지수 소폭 반등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4	5 SK텔레콤 4Q17 실적발표 (11:00)	6 KT 4Q17 실적발표 (16:00)	7	8	9 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25)	10
11	12	13	14	15	16 설날	17

3 주간 뉴스

▶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결국 '파행',,, 시민단체 중도 퇴장 (출처: Digital Times)

- 9일 열린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소비자·시민단체의 중도 퇴장으로 파행
-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소극적이고 대안도 내놓지 않다며 항의
- 오는 22일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전망
⇒ 시장의 논리로 해결해 보려던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이제 온전히 국회의 몫으로 넘어감
⇒ 정부가 6월 보편요금제 입법을 예고했으나,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도입 가능성 여전히 낮음

▶ 25% 선택약정 가입자 800만 돌파 (출처: ET News)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월 7일 기준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844만명
- 20% 할인 가입자는 1,122만명으로 작년 8월 말(1,552만명) 대비 430만명 감소했으나, 25% 가입자가 844만명 증가하며 전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966만명으로 증가
⇒ 전체 선약 가입자는 정부의 예상 시기보다 6개월 빠른 1Q18 내 2,000만명 돌파 확실시
⇒ 4Q17 실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 매출 할인 가속화 전망

▶ 박정호, SK 물류자회사 인수로 SKT 스마트물류사업 키운다 (출처: Business Post)

- SK텔레콤, 지주사 SK로부터 융합물류기업 FSKL&S지분을 인수하며 스마트물류사업 확대
- 박정호 사장은 FSKL&S 물류플랫폼에 IoT 등 신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
- FSKL&S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접목이 예상되며, SK플래닛에서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
⇒ 물류 서비스를 적용 가능한 계열사가 많은 SK텔레콤이 서비스 융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을 통해 Amazon의 'Prime Now' 같은 당일 배송 서비스를 표방

▶ 이통사 '사후신고제' 제안... "경쟁활성화로 요금인하" (출처: ET News)

- 이통사, 요금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하고 피해 소지가 있는 경우 처벌하는 사후신고제 제안
- 기존 인가/신고 기반의 이동통신 요금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면 전환하는 게 핵심
- 보편요금제 출시 대신 사후 규제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
⇒ 보편요금제 출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통신 3사는 이미 일부 요금 상품의 재편 작업 진행 중
⇒ 다만, 정부는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장치가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우려 입장 표명

▶ KT, "필수설비 공동활용 협력, 합산규제는 일몰 기대" (출처: Digital Times)

- KT, 4Q17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 5G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제도개선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와 사업자에 협력할 계획
-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소비자 피해, 경쟁 제한 등의 이유로 일몰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
⇒ KT는 이미 일부 필수설비를 경쟁사와 공동활용 중이며, 금액은 100억 미만 수준으로 미미
⇒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련한 대가 산정 방법에 따라 이익 기여 수준이 달라질 전망

▶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 외부감사법 확대가 해답? (출처: 아주경제)

- 유한회사로 등록된 해외 인터넷 기업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지정돼 매출 등을 의무 공개할 전망
- 구글의 국내 매출은 네이버 이상으로 추정되나, 세금은 네이버만큼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
- 특히, 차별적인 망 이용료 납부 문제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
⇒ 통신 3사와 페이스북의 망 이용대가 협상이 MWC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
⇒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구축 노력으로, 구글과의 망 이용대가 협상 기대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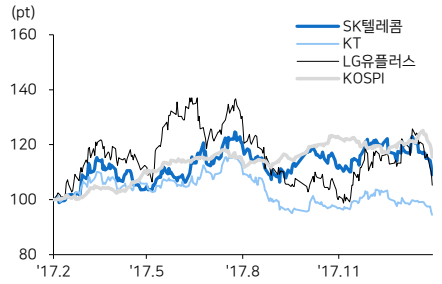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40,000	17.8	16.0	16.2	1.4	1.5	2.4	2.3	4.4	4.5	5.1	5.0	15.0	13.0
	KT	27,900	6.7	21.4	21.7	1.3	1.3	0.7	0.7	4.4	4.5	2.7	2.7	6.2	6.2
	LG유플러스	13,050	5.2	11.4	11.6	0.8	0.8	0.6	0.6	2.4	2.5	3.4	3.2	10.9	10.5
미국	AT&T	36.1	221.3	160.3	162.0	32.4	33.1	20.6	21.3	52.6	53.7	6.4	6.3	15.2	15.4
	Verizon	49.9	203.5	128.3	129.5	29.9	30.7	18.7	19.6	47.4	48.0	6.8	6.7	43.1	37.0
	T-Mobile	59.2	50.6	43.2	45.3	5.4	6.2	2.8	3.4	11.8	12.7	6.8	6.3	11.4	14.0
	Sprint	5.3	21.2	32.6	32.8	2.6	2.4	6.0	0.1	11.2	11.7	4.8	4.6	-0.7	0.9
일본	NTT Docomo	2,690	96.7	43.8	44.9	9.0	9.4	6.5	6.5	13.7	14.1	6.6	6.4	12.4	12.0
	KDDI	2,607	62.2	46.1	47.2	8.9	9.4	5.3	5.6	14.2	14.7	5.1	5.0	15.5	15.3
	Softbank	8,808	89.4	83.8	85.9	11.7	11.7	3.6	6.6	24.9	25.4	8.7	8.5	10.0	16.2
중국	China Mobile	74.6	195.4	124.5	129.4	20.6	21.4	19.3	20.3	45.3	47.3	2.7	2.5	11.9	11.9
	China Unicom	10.3	40.2	46.2	48.8	2.0	3.0	1.6	2.4	14.4	15.4	4.3	4.0	3.3	4.9
	China Telecom	3.5	36.4	61.6	64.0	5.1	5.5	3.5	3.8	16.8	17.5	2.8	2.7	6.5	6.7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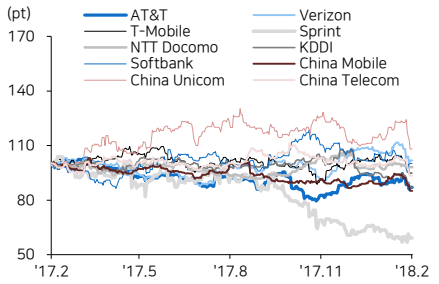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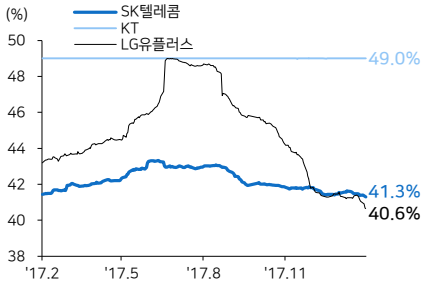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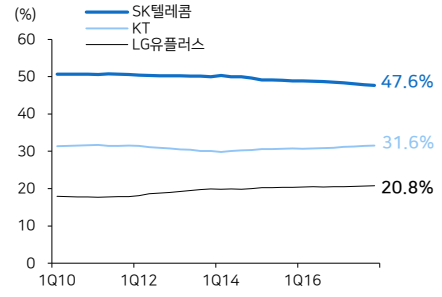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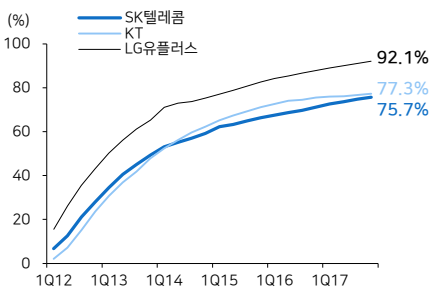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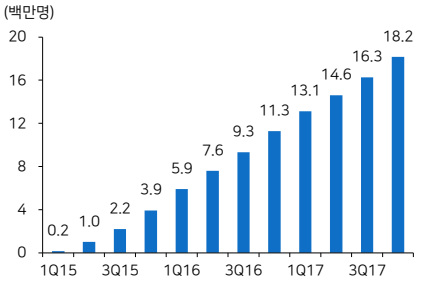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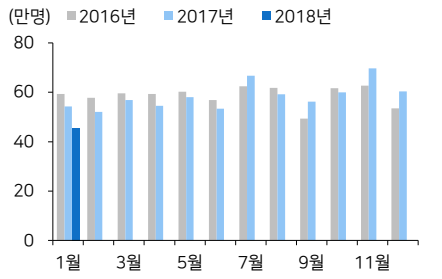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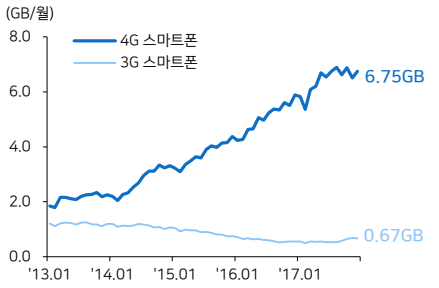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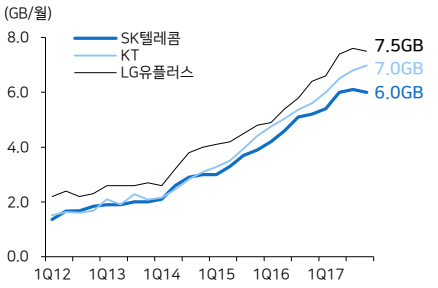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